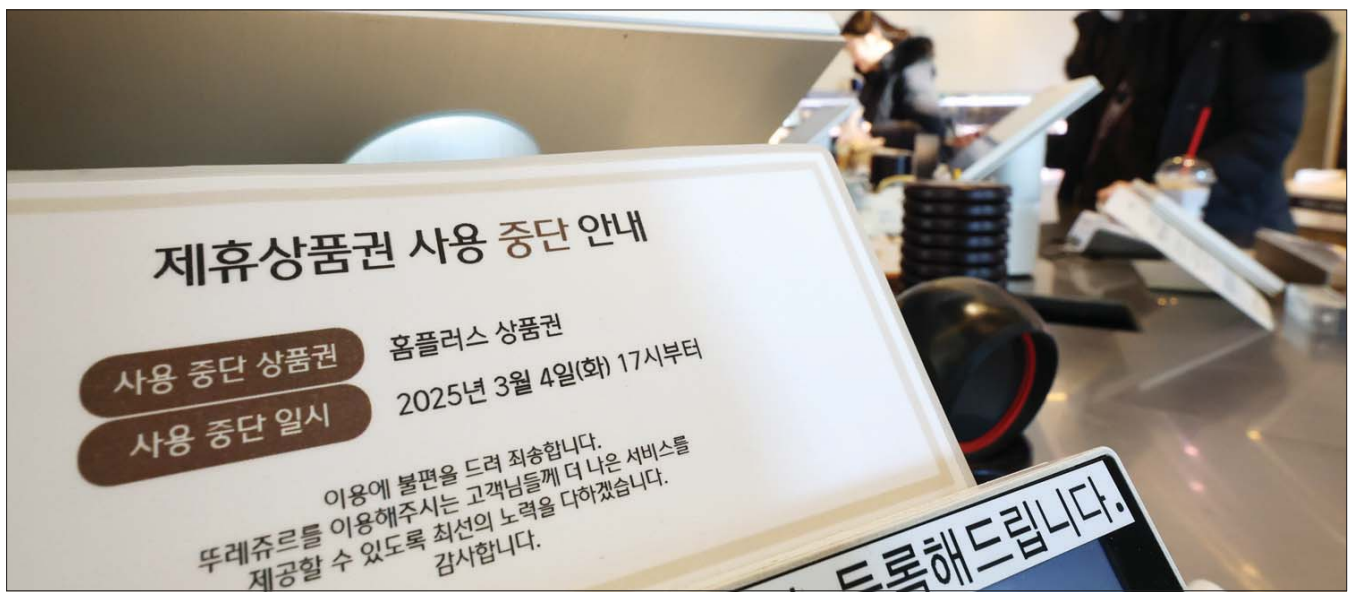
단기이익 챙기고 장기성장 모르쇠… PEF 규제·제재 목소리

〈사모투자펀드〉

2003년 9월 외환은행을 인수한 론스타는 매각으로 4조원의 이익을 챙겼다. 그러고도 한국 정부 때문에 손해를 봤다며 46억 8000만달러(약 6조원)를 배상하라는 투자자·국가 중재를 신청해 일부 승소했다.



6일 서울 시내 한 뚜레쥬르 매장에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 중단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뉴시스

국내 최대 사모투자펀드(PEF)인 MBK파트너스가 외국계 투기 펀드들의 전유물 쯤으로 여겨져던 '모럴 헤저드'와 '먹튀의 악몽'을 소환했다. 신용등급이 강등되면 다시 높이려는 자구 노력부터 하는 게 상식이지만, MBK는 기다렸다는 듯 홈플러스의 법정관리부터 신청했다. 시장에서는 PEF에 대한 적절한 규제와 제재를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토종 PEF, '모럴 헤저드'와 '생존' 사이 접점 찾아 상생 나서야

2015년 MBK는 홈플러스를 인수했다. MBK는 당시 '먹튀자본' 우려에 대해 "홈플러스의 시장 선도적 지위와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2년간 1조원의 투자를 집행할 계획"이라며 "홈플러스 직원들의 현재 고용 조건과 단체교섭 합의안을 존중하며, 인위적인 인력 구조조정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인수 금액은 7조2000억원이었는데, MBK는 이 중 5조원을 홈플러스 명의로 대출받았다. 인수 대상 회사의 자산을 담보로 돈을 빌릴 수는 있지만 인수 자금의 대부분을 충당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 결과적으로 MBK의 인수 자금을 홈플러스가 갚는 구조인 셈이다.

PEF, 인수 이후 수익확보 주력
실질적인 기업성장에는 무관심
"지배구조 개선 등 제도보완 필요"

MBK는 홈플러스의 실질적 성장에는 관심이 없었다. MBK는 장사가 잘되는 알짜 점포까지 매각해 4조원 가량의 차입금을 상환한 것으로 전해진다.

MBK의 이 같은 행태는 처음도 아니다. MBK는 2007년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인 씨앤앰을 인수한 뒤 투자수익을 높이기 위해 외주화와 고용 구조조정을 대대적으로 실시해, 큰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외국계 PEF 못지 않게 토종 자본에 대한 시선은 곱지 않다. 이익도 중요하겠지만 기업 지배구조,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하지 않는 행태를 보여서다. 특히 최근 창업주의 사망 등으로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고 자문업도 활발해지면서 PEF의 행동 반경이 넓어지면서 더 그렇다. 오너 일가 등의 지분 매각을 도우면서 자문 수수료, 성공보수 등을 받는 방식이다.

KCGI는 2019년 한진칼 경영권 분쟁 때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에게 맞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반도건설과 함께 3자 연합을 주도하며 이름을 알렸다. 3자 연합은 실패했지만 KCGI는 한진칼 지분을 팔아 큰 차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쌍용C&E의 최대주주인 한앤컴퍼니는 지난해 상반기에 공개매수와 포괄적 주식교환 등을 통해 이 회사E의 지분을 확보, 지난해 7월 유가증권시장에서 자진 상장폐지를 시켰다.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 교수는 "PEF는 '부도덕한 자본'이라는 별명으로 불린다"며 "불법을 저지르는 것은 아니지만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지 않고 쉬운 방법으로 돈을 벌려고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라고 했다. 박용린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국내 PEF가 성장성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반면 수익성 개선은 미흡한 게 현실이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우려가 나오는 이유가 있다. 상당수 EPF는 하락장을 가장 잘 이용해 가장 매력적인 투자 상품을 찾아내려 하기 때문이다. 싸게 사 몸값을 부풀린 후 되파는 전략을 쓰는 것이다.

미국 대체 투자 플랫폼 아이캐피털이 2002~2017년 미국의 21개 주 연금의 투자 성과를 분석한 결과, 경기가 좋을 때는 공모펀드가 사모펀드보다 평균 2.9% 포인트 수익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닷컴 버블 직후인 2001~2003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진 2008~2010년 등 경기가 나쁜 시기에는 사모펀드가 공모펀드보다 평균 4.4% 포인트 높은 수익을 거뒀다.

◆착한 PEF 나올 해법 찾아야

사모펀드의 먹성은 사회적으로 거센 비판의 대상이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해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 중 57.5%는 사모펀드에 대해 '부정적'이라고 답변했다.

여론이 문제가 아니다. 최근 매물로 나온 기업 대다수가 구조조정 매물이라는 점에서 한국경제의 성장동력 약화라는 우려를 낳는다. 실제 PEF가 사들인 곳의 기업가치 증가 대부분은 매출액 증가에서 나왔다. 자본시장연구원의 분석(2005년~2023년) 결과, PE 투자기업 가치가 증가한 사례의 73.3%는 매출액 증가였다. 이익률 감소로 인해 기업가치는 9.5% 뒷걸음질 쳤다.

자본시장 한 관계자는 "PEF가 '장기투자'를 통해 지배구조 개선 및 지속가능 성장을 안내하는 동반자 역할을 수행하거나 대주주 견제를 통해 주주권익 균형·확장을 추구하는 감시자 역할을 할 수 있게 제도적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회생절차 신청 납득 어려워… 대주주 MBK가 책임져야"

홈플러스 노조 기자회견

MBK파트너스, 회생절차 신청 규탄
"잠재적 금융이슈 선제대응 정상 아냐"

"대형마트 2위라는 자리를 굳건히 지켜온 이곳은, 단순한 직장이 아니라 10만 명의 직원과 협력업체, 입점 업주들이 생계를 이어가는 삶의 터전입니다"

홈플러스 노동자들이 기업회생절차 신청과 관련해 고용 불안을 호소하며 사측에 책임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달 6일 오전 11시 광화문 D타워 앞에서 마트산업노동조합 주최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마트 노조 관계자들이 사측에 책임을 촉구하고 있는 모습 안재선 기자

6일 마트산업노동조합은 홈플러스의 대주주인 MBK파트너스가 있는 광화문 D타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신청을 규탄했다. 기자회견에는 최철한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 사무국장, 강우철 마트노조 위원장, 김광창 서비스연맹 위원장,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 안수용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 위원장을 비롯한 20여 명의 마트 관계자가 참석했다.

노조는 사측의 기업회생절차 신청 자체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강우철 마트노조 위원장은 회견에서 "(홈플러스는) 혹시 발생할지도 모르는 잠재적 금융 이슈에 대한 선제적 조치라고 했다"며 "그러나 이것부터가 정상적이지 않다. 홈플러스는 기업 회생을 신청할 이유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회견에 참여한 안수용 홈플러스지부 위원장도 "MBK는 지난 4일 오전 기습적으로 회생절차를 신청하며 우리 모두를 경악 속으로 몰아넣었다"며 "이게 윤석열의 계엄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강하게 규탄했다.

갑작스러운 기업회생 신청 이후 현장에서 확산되는 고용 불안 분위기도 전했다.

안 위원장은 "지금 현장에서는 회사가 언제 망할지, 폐점이나 정리해고로 언제 일자리를 잃을지 몰라 직원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협력업체들 역시 제2의 위메프 사태를 우려하며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전했다.

최철한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 사무국장도 "홈플러스에는 현재 2만 명의 직영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협력 직원과 중소상공인을 포함하면 10만 명 이상의 노동자가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구 수로 따지면 수십만 명이 홈플러스에 생존을 걸고 있으나, 아직도 국가와 정부는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며 "홈플러스가 회생 계획을 세운다면 직원을 줄이고 점포를 줄이는 방식이 아니라 정말 MBK가 책임지는 방식의 회생 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정치권이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김광창 서비스연맹 위원장은 "정치권이 MBK에 대한 사회적 통제와 홈플러스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을 분리해서 대응해야 한다"며 "만약 정부가 지원을 한다 해도 회사에 지원할 것이 아니라, 코로나 시절 고용 유지 지원금처럼 노동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형태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홈플러스 측은 "점포나 인력감축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회생절차는 금융 채권 상환에 대한 유예 조치일 뿐, 협력업체 대금과 직원 임금은 정상적으로 지급되고 영업도 그대로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국민연금 RCPS 6000억 투자… 대규모 손실 위기

〈전환상환우선주〉

›› 1면 '대금 못 받을라…'서 계속

금융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올해 280억원어치의 기업어음을 발행했다.

가장 최근인 지난달 21일에는 6개월 만기 50억원 규모의 CP를 발행했다. 홈플러스의 CP, 전자 단기사채 등 발행 잔액은 1940억원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자금에는 국민연금의 투자금도 물려있다. 국민연금은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 지분 100%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공동투자펀드를 통해 전환상환우선주(RCPS) 약 6000억원을 투자했다. 전환상환우선주(RCPS)는 투자자가 일정 기간 후 보통주로 바꾸거나 만기 시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우선주 형태의 주식이다.

한 대기업의 기업회생 실무 담당 관계자는 "보통 기업들이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가 법원 감독하에 채무를 변제할 때, 변제 대금이 100% 현급 지급인 경우는 거의 없다"며 "대금이 변제된다면 어떤 방식으로 변제되는지 살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홈플러스 측 관계자는 "아직 회생계획안 작성 중"이라며 "변제 방식에 관해서는 확인해 보겠다"고 답했다.

/안재선 기자